

# 광주 TCS·안디옥·성인오락실 發 ‘끝없는 감염’

1월 한 달 704명, 지난해 연간 확진자의 70%  
 종사자·가족·지인 등 ‘n차 감염’ 빠르게 진행  
 공공기관· 시내버스· 학교 등 잇단 감염 초비상  
 호남권 코로나 백신 이달 중순 1만명 첫 접종

IM선교회 산하 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 성인오락실 발(發) 광주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공공기관과 일선 학교, 시내버스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종사자나 가족, 지인 등으로의 n차 감염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광주, 1월에만 704명...작년 연간 확진자의 70%

1월 한 달 간 광주지역 지역 내 감염 누적 확진자는 704명으로, 지난해 한해 4차례 대유행을 통틀어 확진된 전체 환자(1002명)의 70.3%에 달한다. 효정요양병원(161명)을 비롯해 광주 TCS 국제학교(121명), 안디옥교회(107명), 에이스 TCS국제학교(43명), 성인오락실(37명) 등이 주된 집단감염지다.

TCS와 안디옥, 성인오락실 관련 n차 감염은 2월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는 등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다.

동시다발적 n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이후 열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 ◇공무원 격리·관광서 폐쇄 잇따라

지역사회 내 n차 전파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관광서 내 접촉 공무원 자가 격리와 시설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이날 오전 서구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814번째 환자로 등록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안디옥교회 관련 감염자를 통한 n차 감염으로 추정되며, 센터 직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감

염 사실이 확인됐다. 센터는 이날 하루 임시 폐쇄됐고 2일부터는 대체 근무인력이 투입된다.

광주 1817번째 확진자인 B씨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성인오락실 관련 감염자(1772번째 확진)와 지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최근 동구청과 광산구청을 잇따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창구 상담직원 2명은 밀접 접촉이 의심된다. 동구청 직원 2명과 광산구청 직원 2명은 각각 자가격리됐고, 관련 사무실은 일시 폐쇄됐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1800번째 환자가 다녀간 수완동 행정복지센터도 이날 하루동안 폐쇄됐다. 안디옥교회 관련 n차 감염 사례로, 밀접접촉한 사회복지무원과 행정도우미 등 2명과 간접 접촉자인 직원 5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진자가 방문, 시설이 폐쇄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고교생 집단 확진 교육계 ‘비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선 학교로도 번져 남구 송원여상고에서 재학생 8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 달 27일 방과후 수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교사와 해당 학생 가족 등 밀접접촉 인원 9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 확진자 중 한 명의 가족이 최근 안디옥교회에 다녔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확진 학생을 뵈 나머지 가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심도 있는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서구 광덕고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설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의 발’ 시내버스 기사 확진

성인오락실 관련 연쇄 감염의 여파로 40대 시내버스 기사가 확진돼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기사는 성인오락실 관련 확진자인 1745번째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7~29일 북구 장등동 차고지와 인근 구내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미뤄 “식사 도중, 또는 대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은 것 같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방역 당국은 이 기사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 동료 등 47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기사가 오고간 장등동 차고지를 회차지로 이용하는 운수업체는 4개 업체로 15개 노선에 184대의 시내버스를 운용하고 있어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 지역 성인 오락실 156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문화예술과 공직자들이 북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대형 교회 관련 연쇄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지난 8월에도 광주에서는 시내버스 기사 1명이 확진(광주 311번째 환자)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호남권 의료진 1만명분 첫 백신 접종

이달 중순께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 호남 권역에 배정될 코로나19 백신 첫 물량이 1만 명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증 환자 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이다. 접종은 호남권 지정병원이 조선대병원에서 이

뤄진다.

광주에서는 조선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방학교 생활관, 해아림요양병원, 전남에서는 순천·강진·목포의료원, 나주전진 KPS 인제개발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2월 코로나19 의료진 우선 접종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4~6월) 65세 이상 노인, 3분기(7~9월) 18~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 오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가 오픈한 1일 한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사항을 보고 있다.

## “광주시, 시장 동생 변호인 법무담당관 임명 철회하라”

### “보은인사로 불여지 다분”

광주시가 이용섭 시장 동생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을 개방형 직위 공모를 거쳐 법무담당관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와 재공모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새 법무담당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용섭 시장의 동생 변호인(변호사)을 임명했다”며 “인사혁신 의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 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갖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통상적

이라면 동생 변호인을 개방형 직위에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정설이 있는 인사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 보은 인사로 불여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신임 법무담당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인사혁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전세정 변호사를 광주시 신임 법무담당관(4급)에 임명했다. 법무담당관은 기존에는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던 자리였으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번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월25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전세정 신임 법무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공모를 거쳤다. 그러나 공모 단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전 변호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이 돌았고, 임명이 결정되자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이 시청 안팎에서 나왔다. 오유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문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